

제 2강 : 잠재성

◆1교시: 존재론으로의 전환과 잠재성

▲지난 강의와 오늘 수업에 대해

제국이라고 하는 책의 탄생하고 그 책의 구성, 그 다음에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 또 공저자인 마이클 하트의 삶에 대해서 꼭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이야기 할 4부 1장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어떻든가요? 어려워요? 예컨대 어떤 게 어렵던가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아마 4부 1장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 전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기초소양을 요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이에 비하면 한결 쉽고, 역사적 서술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처럼 읽으면 되는데, 4부 1장만은 개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설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챕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4부 1장에 해당되는 지난 1강 강의안의 2페이지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6페이지에 하나의 도표로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6페이지 그림을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이 다 이해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이 책의 서장, 오늘 2강으로 나눠드린 강의안인데요. 서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여기에서 저자들이 하고자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문자체가 중요한가 하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서문 속에 이 책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서문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개괄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나머지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뻑뻑하고 힘이 들겠지만 이 책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의 존재론 4부 1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으로의 전환

우선 존재론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존재론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존재론하고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뭔가 존재론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거하고 맞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존재론하고 맞짜이 될 만한 어휘, 인식론이라고 하는 말은 생소한가요? 인식론.

1980년대나 이 무렵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컨대 존재론에 상응하는 말로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봤죠? 유물론. 마테리얼리스무스라고 해서 유물론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인식론에 상응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관념론. 유물론과 맞짜이를 이루는 존재론이 관념론입니다. 관념 존재에 대한 이론이고, 물질 존재에 대한 이론이 유물론이죠. 둘 다 존재론에 속합니다(유물론과 관념론은).

반면, 이거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방식이죠. 세계를 구성하는 게 예컨대, 헤겔이 생각하는 절대정신, 이데아, 혹은 플라톤에게도 연결되는 관념인가. 아니면 기계론적이거나 변증법인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물질인가. 그 구성에 대한

담론들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는 원래 관념적인 것이다.

그런데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가 무엇으로 되어있건 간에 그게 물질로 되어 있건 관념으로 되어 있건 간에 인간의 두뇌 속으로 혹은 의식 속으로라도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존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관한 이론이죠.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그 중에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는 반영, 거울에 비추듯이 반사되어 가지고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두뇌 속으로 존재가, 현실세계가 마치 거울에 들어오는 것처럼 반사된다고 하는 게 반영론의 기본입장입니다. 어쨌건 두뇌나 의식 속에 존재가 들어오는 방식에 관한 거죠.

근데 여하튼 이 두 개가 거의 철학자들에는 다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에 강점이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에 강점이 가있는 그런 철학체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지난 시기 좌파사상을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 지난 약 70년 이상 동안 사회주의 붕괴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 경우에는 반영론적인 것이 유물론적인 것을 누르고 있는 입장이었죠. 어떻게 세계가 두뇌 속에 들어오는가. 어떻게 세계가 당 속으로 들어오는가. 어떻게 세계가 수령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가. 그래서 누가 더 절대적인 지식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서 위계, 하이어라키를 나누는 그러한 사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변증법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물론에 대한 논의는 반영론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반영의 문제, 이게 세계 인식의 문제죠. 인식론이 우월했던 한 시대였다고 우리는 역사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존재론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인식론의 지배에서부터 존재론으로의 지배로의 방향전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담론은 네그리나 하트와 같은 최근의 정치철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근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반영론을 위시한 다양한 인식론들의 우월성이 주장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면 거슬러 내려갈수록 존재론적인 입장이 훨씬 더 섬세하게 발전되어 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형이상학의 재조명

그래서 서구에서는 바로 이 존재론적인 입장을 부르는 아주 부정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존재론적인 철학들, 그 테마들을 취급해온 평가절하를 위한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형이상학이라고 해가지고, 메타피지크라고 하는, 피지크라고 하는 게 물리학이고, 메타는 그걸 넘어서는 것, 형이상, 어떤 모습을 갖춘 것의 위에 있는 거라고 해서 형이상학이라고 언톨로지를 비판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과학, 근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으로의 존재론을 괄호치거나 부정한 자리에서 정말로 독보적인 사유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형이상학을 과학이 대체한다. 이런 관념들이 근대 들어오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이정우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메타피지카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형이상학의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메타피지카라는 말을 네그리나 하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순수과거로의 복귀,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은 이정우 선생하고는 좀 다른데, 여하튼 근대 들어와

서 형이상학으로 분류되어서 기각되었던 존재론, 이것을 다시 우리 시대에 불러와가지고 새롭게 정교하게 만드는 것, 새롭게 가공하는 것, 이것을 네그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4부 1장에서의 주의점

그래서 4부 1장, 451페이지 잠깐 한 번 보면요. 쪽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맨 처음에 인용되고 있는 질 들뢰즈의 인용문은 거기 사람들이라고 해놨지만 people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낸 책도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민중이 실존하지 않는다. 혹은 아직까지는 실존하지 않는다. 민중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표현이라서 사람들이라는 말로는 좀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민중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변화의 시대에 존재론으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이 챕터가 밝혀주는데. 지금 맨 앞에 리바이어던을 얘기하는 홉스, 흄,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쪽 뒤로 가면 예컨대 453페이지 아래 셋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거나 마지막 줄에 헤겔이라거나 459 페이지에 니체라거나 그 옆에 보면 아감벤이라거나 또 스피노자라거나 이런 고전적 철학자들에 대한 평가가 쪽 이루어집니다.

네그리나 들뢰즈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존재론에서 우리가 뭘 가져와야되고 뭘 버려야되는가를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데, 그게 뭐 자세하지는 않죠. 상세하지를 않고, 아주 탁탁 치는 방식으로 이런 선협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챕터가 철학사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아주 곱곰이 읽어야만 되는 그런 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존재론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존재론 그 자체가 뭘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우리 주제가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제국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존재론이라고 하는, 존재론으로의 전환이 무엇을 우리한테 의미할 수 있는지 그 측면만을 살펴야 될 거 같아요.

▲실재하는 것, 버추얼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와 다에 보면 ‘척도 바깥에’ 라는 말하고 ‘척도를 넘어서’ 라는 말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4부 1장의 소제목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한 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를 살펴보고 하면, 가상들이라고 4부 1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상들이라고 번역된 버추얼이라고 하는 게 뭘냐? 우리는 가상들이라는 번역이 적절치 않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컨대 버추얼리얼리티. 이런 식으로 분리워지는 현실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가상현실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주로 4차원 공간, 게임하는 곳에서 나는 여기에 있고, 상대방은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컴퓨터 앞에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공간의 형태이죠. 컴퓨터 네트워크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잖습니까. 물리적인 조건 속에서 즉, 장소적으로 한정된 공간, 제가 어릴 때에도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고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고지기, 알릴고자, 알릴지자를 써가지고 뒷동산에 올

라가가지고 마을사람들한테 큰소리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모여 주십시오.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듣고 동네 마을회의에 참가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고지기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육성, 육성이 전달되는 한도 내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글을 바로 올려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영국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라크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논리적으로는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공간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걸 버추얼리티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게 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상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이. 실재하지 않는다. 가상이라는 말이 불러오는 하나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걸 저자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버추얼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실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추얼은 실재한다.(라는) 실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버추얼에 대한 어떤 해석가가 말한 것처럼 실재하는 것보다도 더 실재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실재성,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성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사실상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이 책에서 버추얼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전체, 엮어짜고 다음에 우리가 강의할 멀티튜드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버추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과연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 삶의 유용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버추얼을 비실재로 보는 태도하고는 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해석방식인데, 바로 버추얼을 비실재로 해석함으로써 실재의 버추얼, 실재적 버추얼, 실재하는 버추얼, 실재하는 이 잠재력을 억압하는 그런 이런 체계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과의 투쟁에서 버추얼이라는 용어의 번역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추얼을 실재로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새길 것이냐 대안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잠재성 혹은 잠재력 이렇게 새기는 것이 일단 현재의 어휘용법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 왜냐 하면, 잠재한다고 해도 실재성은 부정되지 않잖아요. 잠재한다. 가라앉아있는 상태, 잠수한다 할 때처럼 밑바닥에 깔아있는 상태로 실재한다는 의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재로 일단 버추얼을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근데 버추얼로부터 버추얼이란 건 잠재적인 것이지만 잠재한다고 해서 꼭 숨어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잠수함 할 때 그 잠자를 쓰고, 이 잠자라는 건 숨어있다. 라는 뜻이지만 숨어있다는 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숨어있지만. 그래서 예컨대 액추얼하게 액트, 이건 무슨 뜻이죠? 행동하다는 뜻이죠. 행동하는 상태,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표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밑바닥에서 존재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 운동적 힘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비르^{vir}라고 하는 거를 힘으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원적으로 봤을 때 비르라는 말은 원래 힘이라는 용어이고.

그래서 에스페란토 같은 데서 남성 그러면 비로^{viro}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힘을 의미하는 거죠. 한자에서도 남성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발전 자하고 힘력 자를 쓰지요. 발을 힘이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남성에다 쓰고 있는데, 이게 성차별적인 표현이죠(사실상). 이렇게 힘은 남성에게 있다고 하는 표현은 역사 속에서 남성의 형성과정에서 부여된

것이지 원래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성이 인류학적으로 고찰해보면, 오히려 더 많이 노동하는 사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차별적인 표현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것만 일단 이해하는 걸 보면 힘을 비르가 의미한다. 그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교시: 척도 바깥에, 가치를 넘어

▲pouvoir와 puissance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구분을 힘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힘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힘은 여러 가지 군사력이라거나 행정 권력이라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계적 명령체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게 되겠죠.

거기에는 누구나가 다 일단은 강제적으로 복종해야하는 의무를 지도록 현행의 국가질서 속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사되어지는 힘, 하나의 명령력으로서, 질서력으로서 행사되는 힘과 이걸 우리는 보통 권력이라고 부르죠. 프랑스에서는 이걸 pouvoir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행사되는 힘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명령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좀 다르게 행사되는 힘, 예를 들어 다지원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발성을 가지고 다지원의 운영을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인터넷 혹은 오프라인에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협력관계, 또 가족이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쨌건 사람들의 일정한 협력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 어린아이를 돌본다거나 이런 작업 있죠?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봐주는 그러한 거라거나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예컨대 부모가 필요로 하는 일을, 심부름이건 뭐건 간에 도와준다거나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하잖아요. 경제적 가치로서 계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어린아이의 존재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질서로서의 힘의 발휘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힘. 힘의 그러한 행사, 이것을 우리는 활력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곤 하는데, 딱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단 권력과의 대비를 위해서 이런 번역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puissance라고 프랑스에서는 부릅니다. 이 두 개의 힘의 구분이 붙어 속에서는 존재하죠. 영어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두 개를 묶어서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힘의 구획이 있는데, 두 힘의 관계가 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역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됩니다.

▲명령어와 통과어

이 테마, 권력과 활력의 구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언어학적인 테마라고 나오는데, 지금 아마 들뢰즈의 언어학을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보면 명령어하고 통과어, 통과어라는 게 영어로는 패스워드죠. 이거는 워드 오브 오더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질서를 잡는 언어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들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암호 그거를 뚫고 나가는,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들뢰즈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지금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명령질서를 통과해가는 힘을 지칭하거든요. 패스워드를 찾는 거죠. 패스파워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건 통과하는 힘, 이것을 들뢰즈는 탈주선이라고 불렀어요.

질서, 이것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이렇게 지나가는 힘, 그거를 탈주선, 힘에 대한 들뢰즈의 표현법은 선입니다. 라인이거든요. 힘은 라인으로 나타난다고 본 건데, 이 선이 탈주해 나가는 혹은 도주해나가는 그 방식을 탈주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패스워드를 이야기한다거나 활력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건 동의어아라고 봐도 좋겠는데요.

어쨌건 지금 패스워드라거나 활력 같은 게 실재한다고 하는 것, 버추얼한 것으로서 실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버추얼과 액추얼: 분화와 미분화

그런데 버추얼한 거는 항상 액추얼한 것으로 되어 나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건 액추얼로 나타나고 있고, 두 개의 관계를 들뢰즈가 설명할 때는 책상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이 사이의 접면이 있잖습니까. 두 책상의 접면으로 버추얼을 설명합니다. 혹은 옷으로 치면 안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안감이 버추얼이라고 불러요. 그럼 겉감이 액추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공존해서 같이 가지 않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액추얼만 있고, 버추얼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두 개는 같이 가면서 끊임없이 상호 변환하고 있는데, 상호 변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방향으로의 변환이 하나 있고 즉, 버추얼에서 액추얼로 변환하는 게 있고, 액추얼에서 버추얼로의 변화가 있는 셈인데, 지금 이 변화를 들뢰즈 같은 경우는 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는 사실상 이 변화 전체를 다 지칭하는 것이기도 한데, 결국 주사위가 던져져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던져져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차이가 생산된 거죠. 차이가 생산된 거라서 미분화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분화와 미분화라고 부르는데, 지금 상호변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버추얼과 액추얼을 일단 이해해보자.

▲척도의 측정, 노동시간

그러면은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immeasurable(척도 바깥에)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척도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측정한다. 즉, 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까지의 길이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3미터든 2미터 얼마든 간에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철판을 가지고 철판을 잴 수는 없잖아요. 철판의 길이를 재려면 철판의 길이와는 다르게 즉, 자가 필요한데, 자라고 하는 것은 철판의 외부적인 것이죠. 외부적인 척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는 거는 철학사에서는, 헤겔철학에서 Maß개념, 이게 척도인데요. 영어에서도 mass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양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양화시킨 척도인데, 척도가 헤겔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척도 기능이 우리가 조금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맑스의 가치 법칙에서 보면,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노동시간, 정확하게 표현해볼까요. 한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이게 맑스가 근대자본주의 초기를 설명하며 사용한 가치 개념이죠. 한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어쨌건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으로 귀착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하기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노

동시간이 척도가 된다는 건데, 노동시간은 노동의 지속시간이죠. 노동이 이만큼 지속된다. 이런 거죠.

저도 지금 현재 노동을 하고 있죠. 제가 말을 해가지고 지금 약 40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노동이 지속된다. 40분이 지났다. 그러면 40분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균으로 이해하십시오. 평균적인 가치는 얼마이다. 아르바이트 요즘 24시간 편의점이라거나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르바이트하면 보통 한 시간에 4천 원 정도 계산하죠. 그렇지 않아요? 3500원? 한 3500원, 많이 주면 4천 원, 좀 비싸면 그보다 더 뿔 수 있겠죠. 그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 노동활동의 길이, 지속시간을 재는 척도라는 거죠.

근데 노동을 빼버리면 시간만 남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뭔가의 가치를 재는 잣대로 사용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동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지체로운지 얼마만큼 성품이 차분하고 정직한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일을 해도 40분 노동하면 얼마, 한 시간 노동하면 3500원, 4천원, 아무리 성미가 고약하고 욱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3천 5백 원, 4천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변별성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시간만이 말해주는 그 어떤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노동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노동을 생각해보면,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한참동안 놀다가 우리 노래 한 번 해볼까요? 하고서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들었던 무슨 이야기 있는데 옛날 얘기 좀 하고 2시간 흘러갈 수 있죠.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공장에 가가지고 꼭 일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오면 기계 앞으로 갔다가 뒤에 가서 담배한대 피고 오고, 사무직 노동자가 되면 요즘 더 많잖아요. 컴퓨터로 메일 주고받고, 게임 같은 거 하다가 Alt+Tab해가지고 화면 바꾸기 하게 되면 마치 노동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러니까 노동의 지속시간에는 질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아마 2시간 동안 내리 떠들어도 2시간 가는 거고, 다르게 보내도 2시간 가는 셈인데. 거기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질적 측면, 질의 측면을 우리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요소로 인지하는데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은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가치평가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척도라고 하는 것, 이게 가치법칙, 시간을 통해서 노동을 잴다. 얼마나 오래했느냐 가지고 노동을 잴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단위를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그리는 맑스가 이걸 설명하던 시기에 근대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활동이 주로 농업노동이었었고, 하지만 맑스는 농업노동 속에서 공업노동으로의 경향적 변화를 주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방직공업이 최첨단 산업이었을 때, 그래서 양들을 들판에 키워가지고 양의 털을 잘라내 가지고 런던에 있는 방직공장으로 보내는 그런 게 아주 새로운 유형의 산업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가치법칙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산업자본 모델론이죠. 산업노동을 모델로 하면서 가치법칙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노동의 전형적이고, 가장 우월하고 지배적인 형태는 오늘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산업노동이 아니라면.

▲가치측정이 불가능한 노동의 등장

서비스노동. 서비스. 서비스라는 건 여러 가지의 어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말로 보면 봉사다. servant하면 하인이 되는 거고, 어쨌든 봉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인이내 뭐냐 하는 거를 떠나서 봉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나쁘다. 그렇게 평가 안할 거예요.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뭔가 봉사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돕고 자원 봉사한다. 그럴 때 봉사하는 노동을 서비스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산업노동에 비해서 서비스 노동이 증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는 적어도 제1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제3세계였었는데, 이제 신흥공업국을 넘어서 어쨌건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서비스화의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서비스 활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 간의 일종의 네트워킹이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돕는 활동, 삶에서의 네트워킹관계를 어떤 분절화 시켜보면 질적으로는 누군가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우리 삶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그거를 가치법칙, 자본의 보면 그게 어떤 형태의 노동으로 즉, 서비스 노동으로 파악이 되죠. 근데 서비스 노동에서 과연 노동의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가능한가? 라고 묻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서비스 노동에서 과연 시간을 척도로 하는, 지속시간이 그 노동의 가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 시간의 척도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쨌까요?

그러면 만약에 야구선수 누구죠?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박찬호가 투수입니까? 투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한참 오랫동안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컨대 삼진을 몇 명 시켰느냐 이런 거는 투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테고, 선동열이죠? 타자로 치면, 홈런을 한 방 치면 엄청난 돈을 받는데, 그 노동이 그것의 어떤 지속시간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가치평가가 내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이, 그 연예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서비스 활동인데, 어떤 사람은 막노동꾼보다도 못한 보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한번 출연하면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되는 액수의 돈을 받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은 10분만 하고, B는 몇 천 시간을 노동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돈이 다 몰려드는 건 또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갖고 있고, 빌 게이츠는 개인으로 보면 제일 부자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게 예외적이고 그렇게 자질구레하고 사소하고 예외적인 걸 들어가지고 아주 주류적인 거를 비판하려고 하면 되느냐 라고 반문하기에는 현재의 부의 생산과 분배문제에서 바로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 규모가 크고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전히 길이로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는 산업노동조차도 길이를 넘어서는 즉, 길이를 잴 수 있지만 질은 잴 수 없으니까 질은 다 고유하고 특이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로 보이는 것조차 점점 척도를 넘어서 질의 문제로 전환해가는 경향, 이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생산도 점점 예컨대 Just in time 생산체제로 바뀐 다음부터는 고객이 원하는지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가면서 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노동의 길이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현상, 산업노동도 서비스 노동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농업의 경우에도 상당한 지적 노동의 성격을 띠, 원래 농업이 천문학적 노동이죠. 박물관적

노동이죠. 농업을 하는 사람은 달의 흐름이라거나 별의 흐름이라거나 해의 움직임이라거나 지질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만 생산물이 나오는 그러한 복합적 지식체계를 요구하는 건데, 오 늘은 거기에다가 첨단산업에 대한 첨단지식. 그러니까 유전자 문제라거나 이런 생명공학이 라거나 지식을 가져야만 농업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벌레들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하는 거고, 상당히 많은 박물학적 지식을, 농업노동 자체가 아주 지적인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서비스 노동화의 경향이 제2차 노동, 제3차 노동에서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 노동화외에 지식 노동화, 정보 노동화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 게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측정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노동개념

이거는 노동이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 그 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장에 사람들이 막 출근하는 모습, 예컨대 <모던타 임즈> 같은 영화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있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모습을 우 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노동 과정에서는 역시 찰리 채플린이 가장 전형적으로 보 였지만 볼트가지고 조이고 풀고 하는 거, 그래서 단순한 조립노동에 적응이 되다보니까 쉬 는 시간에도 여성이 지나갈 때 단추를 돌리려고 할 정도로 몸에 습성화된 그런 노동습관, 이걸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노동표상은 노동의 일반적인 즉, 언제나 노동이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의 노동에 대한 우리의 표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어떤 지배적 노동 관념을 갖고 있을 뿐이지 노동이라는 건 원래 그런 역사적 형태들, 이걸 현실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노동시기에는 산업노동이 잠재적 노동의 현실태인 것이죠. 이 현실태하고는 다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 관념도 바뀌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네그리가 하 고 있는 거는 결국 산업노동기에 형성되어있는 노동관념, 노동개념 그것에 새로운 관념을 부여하고 변화된 만큼 노동개념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 이상이 아닌 거죠.

그 하나가 측정불가능한 척도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동현상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서비스 노동, 지식 노동 이런 건 다 액추얼한 노동형태들이죠? 액추얼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제국의 시대에 노동이 취하고 있는 현실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 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노동의 버추얼, 현실적인 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그 노동의 실상이 뭐냐. 이건 우리한테 숙제로 던져져 있고 바로 제국이라는 문제를 이 개념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벌써 옛날 얘기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노동 그거 우리 다 아는 건데, 노동 얘기가지고 그냥 제국 설명하려고 한다면 시시한 반복 아니냐.

예컨대 노동 속에 사랑이 들어가고, 우정이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기쁨과 슬픔 같은 거 있죠. 우리는 이걸 어펙트라고 나중에 부를 텐데요. 정동 같은 요소가 들어간다. 혹은 일반지성이라고 말한 지식의 요소가 들어간다. 상호 소통, 커뮤니케이션 문제, 게임 같은 것도 소통 쪽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요소가 들어간다. 했을 때에 노동에 대한 우리의 낡은 표상을 가지고 이렇게 노동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옛날 것이지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직

면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노동 개념, 노동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게 우리한테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부를 거고, 어떤 현상을 노동이라고 말할 것인가.

▲‘척도를 넘어’와 ‘측정할 수 없는’

척도를 넘어 까지만 좀 하고 잠깐 쉬겠는데요. 척도를 넘어beyond measure하고 측정할 수 없는immeasurable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 두 개는 우리가 측정한다고 하는 것, 측정한다는 현실은 바로 법칙의 적용 문제로 일단 나타나죠. 어떤 척도를 적용해가지고 이 현실을 재단하는 겁니다. 근데 척도를 넘어선다는 것, 이게 척도인데, 척도 너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척도 너머의 있는 것의 고유한 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maß적인 것이 아닌, maß적인 차원을 넘어 서 있는 그 무엇, 그러면은 측정불가능성과 척도너머의 것을 구획을 지어 보면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권력의 입장에서 혹은 액추얼의 입장에서 혹은 자본의 입장에서 버추얼이 다가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권력이 이거를 재려고 하다 보니까 재지지 않는 거죠.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내가 잡아야지 해가지고 물을 꼭 거머쥐면 질수록 물은 쪽 빠져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버추얼한 게 액추얼에, 활력이 권력에 다가오는 모습이 immeasurable입니다.

근데 이제 시선을 바꿔가지고 권력의 입장 말고 버추얼의 입장에서 보면 버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를 재려고 하는 척도의 힘 속에 있지만 이것과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힘으로 존재하잖아요. 지금 제가 척도 속에 있지만 혹은 권력 속에 있지만 그것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이게 WAB를 우리는 얹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얹의 방식으로 버추얼은 척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도 너머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의 입장에서 액추얼을, 활력의 입장에서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권력 너머에 있고, 액추얼너머에 있고, 자본너머에 있는 것으로서의 노동, 자본너머의 노동, 액추얼너머의 버추얼, 권력너머의 활력, 명령어너머의 통과어,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immeasurable하고 그 다음에 beyond measure라고 하는 것은.